



“고정밀지도 내주고, 쌀·소고기 수입 막는다”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 보도 내용 (서울경제, 12.14) >

◆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, 쌀·소고기 수입 막는다

○ 한미FTA 공동위 이행계획 논의, 구글·애플 등에 일부 허용 전망

□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이행계획 논의 관련,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「공간정보관리법」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외 반출 협의체*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며, 현재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* (협의체 구성) 국토부, 국방부, 국정원, 외교부, 통일부, 과기부, 행안부, 산업부

□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	책임자	팀 장	정성화	(044-203-5640)
		담당자	사무관	서준호	(044-203-5641)
	산업통상부 디지털경제통상과	책임자	과 장	고장원	(044-203-48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배	(044-203-4885)
	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	(044-201-3258)
		담당자	사무관	김통일	(044-201-3480)